



댄디Dandy한 건축 실험 Dissecting the Dandy Architecture

건축리포트 와이드 45호, 2015년 5-6월호
WIDE Architecture Report, Bimonthly 2015 5-6

송하엽 Prof. Hayup Song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Chung-Ang University, School of Architecture & Building Science



Herma Parking Building, Yongin

건축가 이정훈은 철학과 재료 등 정신세계와 물질세계에 대한 관심을 융합하려 한다. 현재는 이런 관심을 통해 종종 이론의 틀에 갇히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직업적인 선입견과 해안에 충실한 건축을 구사하고 있다. 관심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적인 것을 그저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닌, 해결 방법을 위한 백 가지의 경우를 공부하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본다. 인터뷰나 그의 글에서 보이는 지적 탐구와 설계에 드러나는 집요함은 몇 년 안된 그의 건축 활동보다 앞으로의 활동에 더 기대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필자를 비롯해 주변의 지인들 그리고 학생들에게서 느껴지는 공통점은 머리쓰기는 좋아하지만 몸쓰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 앞에서 밤새는 것도 머리쓰기로 간주하자. 그만큼 현대인들은 관습적인 방식의 리서치와 설계에 익숙해 있다. 이에 더하여, 이정훈은 현장에서 몸소 작업하는 양도 꽤 많은 것 같다. 물론 많은 건축가들이 현장작업을 하지만, 이정훈은 용접, 벽돌쌓기 등을 통해 작업자와 대화가 많은 듯하다. 이런 노력들을 거쳐 그가 완성한 건물들은 기존의 도시 건물에 비해 텍토닉적으로 차별화된 댄디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건물로서 충실한 개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그의 건축은 빛의 반사와 굴절로 인해 변화무쌍한 모습을 지니며, 시공의 흔적이 보이고 또 숨겨지는 끝없는 현장과도 같다.

건축가의 현장 정신과 기술

20세기에 들어서 현장 작업에 충실한 건축가들은, 일일이 알지 못하더라도, 라이트의 수제자들이 탈리에신을 짓는 장면의 사진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다. 탈리에신을 지었던 파올로 솔레리, 찰스 임스들의 건축가들은 수련 이후 독특한 조형과 텍토닉으로 승부한 전설이 되었다. 부정적인 의미의 댄디가 아니라, 디자이너로서 댄디한 건물과 가구를 만든 것이다. 사무소를 공방으로 운영한 프랑스의 장 푸르베 역시 몸을 쓴 대표적인 건축가로, 댄디와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나는 오랫동안 가죽 앞치마를 입었다”라고 할 정도로 공방 정신을 몸소 실천하였다. 재료에 대한 실험은 미국 텍사스의 건축가들에게도 그 맥이 흐르고 있다. 현대 일본 건축가들 사이에도 뚜렷한 경향이 보인다. 이렇듯 전 세계에 걸쳐 재료에 대한 실험과 텍토닉의 탐구는 건축가의 기본이다. 안도 타다오의 사무실도 콘크리트 타설하는 날 다들 출동한다고 하지 않던가.

결을 달리하여 서울의 건축을 보자. 논란이 되었던 DDP 건물과 국제 공모 당시 2등안이었던 조성용의 안은 무엇이 다를까? 1, 2등안의 배치는 거의 유사하였고, 2등안이 동대문 운동장의 부분을 나기는 등 개념적으로는 더 우수했을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에서 어떤 정치적인 선입견을 떠난 외국인 심사위원의 눈에 건축 기술의 진보라는 측면이 크게 부각되었고, 나름 새로운 건축언어 구사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을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2등안에서는 벽의 기술적인 진보가 그다지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DDP는 외벽 알루미늄 패널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제작 방식을 탐구하다가 금속 성형과 절단 장비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 기술도 중국에서 복사하여 더싼 값에 팔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공과정에서 패널 한 장 한 장 오차가 날 때마다 떼고 다시 성형하여 붙이며 건물을 말쑥하게 우주선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또 다른 번외 얘기를 하다 보면,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설계경기에서 나름 신기술을 적용한 안들이 번번이 떨어지며 필자가 학생 때 했던 것과 다름없는 구성을 가진 안전한 안들이 당선되는 경우가 많다. 설계경기를 하는 목적은 다양한 진보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지만 유독 기술과 재료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이거나 의심의 눈초리만 보내게 되난. 결국 이런 현상은 60대 건축가들의 건축언어를 후배 건축가들과 심지어 학생들까지 따라하게 만드는 신드롬을 만들었다. 물론 모든 건축 작업이 진보적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다양한 실험에 근거한 건축 작업의 창의성을 필자가 주장하는 이유는 인류는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가져다 준 이후로 끊임없이 기술을 발전시켜야하는 운명에 있고, 건축가도 기술의 발전을 앞당기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 기술은 편리를 위한 상품적 발전도 있지만, 새로운 가공이나 조합에 의한 윤리적 또는 시적 감성의 발전으로도 향할 수 있다.

열린 시스템의 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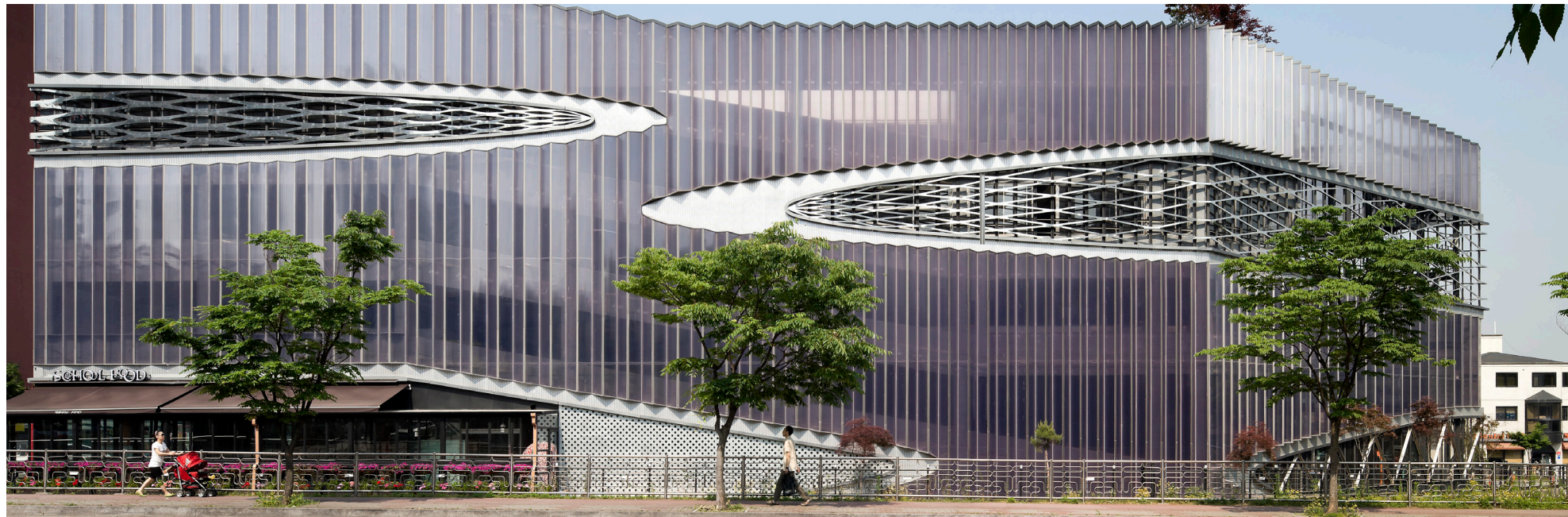
이정훈에게 제일 가까운 건축가적 모델은 필자가 보기에 장 프루베인 것 같다. 공교롭게도 그가 공부한 낭시지방이 프루베가 작업한 곳이다. 프루베는 그의 금속 공방에서 디자인을 실제로, 또 모형으로 직접 만들어 작업했으며, 모든 작업자들이 직위에 관계없이 일하는 참여 작업 방식을 운영에 도입했다 하나의 프로젝트에 모두가 스스로 결정을 내렸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명성을 함께 나눴다. 이는 당시 미국의 대량생산 체제인 포드주의나 이를 모델로 했던 알버트 칸 건축사무소의 위계 조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주1}

프루베가 제작한 건축 부재들은 구조체와 건축 외장이 합쳐진 복합체였다. 프루베는 항공기 제작 기술을 건축 시공에 실제로 적용하였으며, 외장 패널에는 디자인이 중심이 되는 표준화를 추구하였다. 프루베의 패널들은 표상적 기능 의외에도 건물 외장이 스스로 구조적으로 완전할 수 있는 구축적인 완성을 확보하고 있다. 1m x 4m의 규격을 가진 <민중회관>의 패널들은 하단과 상단에서 서로 맞물려 고정되며 철재 앵글을 통해 슬래브 상단에 부착된다. 건물 구조에서 독립하여 패널들은 구조적으로 스스로 자립해 있다

외벽 시스템이 구조와 분리되어 독자적 형식으로 발전하는 경우, 건물의 디자인은 비행기나 자동차 디자인과 유사해지며 시공도 조립에 더욱 가까워진다. 프루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기성 제작되어 구입 가능한 재료와 부재를 디자인의 기준으로 삼는 ‘열린 시스템’ 시공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 이 방법은 오직 개개의 부재들을 이미 완성된 디자인과 건물에 적용해 다양성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만 유용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물의 부재를 개별 건물의 디자인에 맞춰 생산하는 ‘닫힌 시스템’이라는 더 충실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 프루베의 이러한 생각은 기계들이 일반적으로 한 곳에서 생산된 부품들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는 건축, 특히 개인 주택의 시공은 닫힌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닫힌 시스템을 따르는 건축가들은 더 이상 엔지니어들에게 부재 디자인을 의존하지 않을 것이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 건축과 엔지니어링이 결국은 하나로 통합될 것이라 믿었다. 프루베에 따르면, 가장 좋은 방법은 건축가가 엔지니어가 되는 것일 거라고 했다. 그러나, 현실이 그러한가? 외주와 하청이 빠른 게 현대 기술의 경향이다. 프루베의 의도는 구조에서 독립된 외벽 시스템까지 현대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닫힌 시스템은 좀 무리가 있다.

주1. 송하엽, 최원준 역, 『표면으로 읽는 건축 (Surface Architecture)』, 2009



The architect Jeonghoon Lee tries to combine his interest in the spiritual world and the physical world such as philosophy and materials. Through this interest mentioned above, he makes fewer errors in getting stuck in the world of theoretical approach and operates faithfully with exceptional professional preconceptions and insights. I believe that Lee does not just browse his peripheral information, but instead, I can sense his character of searching for every possible case when finding the very apt solution. His intellectual inquiries and obstinacy in design which appear in his articles and interviews make me look forward to his works in the near future. One common thing that I can spot from today's architects, students, and including myself is that we all favor working on a chair rather than doing the physical work outside. Let pulling an all-nighter on your computer desk consider mental labor; we are used to the custom of using computers when we design and research. Add to this; it seems that Lee spends quite a lot of time out in the field and gets involved with the construction works. Of course, most architects work in the field, but he seems to have many conversations with contractors and field workers through welding, building bricks, and so on. Through these efforts, the buildings that he finished have developed a distinctive tectonic; a 'dandy' appearance compared to the existing buildings. In other words, Lee's buildings hav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Besides, it has a versatile look due to the effect of reflection and refraction of light, which reminds me of the field work like how it simultaneously disassembles and reveals the trace of construction.

The Spirit of Construction and Technology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rchitects who put emphasis on the construction field and the practical knowledge could be found in the picture of Frank Lloyd Wright's disciples building Taliesin. Paolo Soleri and Charles Eames became well renowned for their unusual formations and tectonic flows after practicing architecture under Frank Lloyd Wright. They created a 'dandy,' without the negative annotation, architecture, and furniture. Jean Prouvé, one of the most prominent French architects who runs his office in a studio, is rather a way off from the expression 'dandy.' Prouvé practiced the spirit of the craftsmanship as he once stated, "I wore a leather apron for a long time."

The experiment on the material flows to the architects from Texas and could spot a clear trend among modern Japanese architects. The study of materials and the exploration of tectonics are the foundations of the practicing architecture throughout the world. Haven't you heard that architects in Ando Tadao's architecture firm all rush to the construction site on the day when concrete is laid?

For instance, let's look at the architecture in Seoul.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winner proposal of the somewhat controversial DDP building and the runner-up at the time of the international design contest? Both layouts from the first and the second were almost similar; in fact, the runner-up proposal might have a better concept, leaving part of the Dongdaemun Stadium. On the other hand, in the eyes of foreign judges, without political preconceptions, wanted to emphasize the progress of architectural technology and would have much appreciated the new architectural language from the winning proposal. I did not see much of technical improvement on the wall in the second winner's project. As a result, a new metal forming and cutting equipment were developed as they started to explore a variety of manufacturing methods to make DDP's aluminum-walled exterior panels. Although this technology can be found in China at a lower price, they made every aluminum panel piece by piece and took off, if necessary, and reshape whenever there found errors and eventually creating a flawless spaceship-like building.

Secondly, there are many cases in domestic design competition where the proposals with new technology lose and the safe ideas with no innovation whatsoever, the configuration similar to what I did in college, are often elected. The purpose of the design competition is to achieve new technologies and ideas, but judgments about the technology and the use of new materials are often too reserved. Eventually, this phenomenon has created a syndrome and led younger architects, and even students follow the architecture's language of the 60s architects. Of course, not all architectural work must be progressive. However, I believe that the creativity of building design based on various experiments is because humankind is destined to develop technology since Prometheus brought the fire and that architects are also intended to accelerate technology.

That technology might be the product development for convenience but may also lead to the development of ethical or poetic sensitivity through practicing new processing or combination of materials.

Transformation of 'Open-System'

The closest architectural model of Lee seems to be Jean Prouvé in my view. Coincidentally, he studied in Nancy, France where Prouvé practiced metalwork and architecture. Prouvé, in his metal workshop, also designed and created buildings, and introduced all the workers to participate in every process of a project regardless of their position. Everyone makes his or her own decisions in the project and shares the profit and reputation evenly. This was entirely different from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Albert Khan's architectural office modeled from the US mass production system at that time.¹

The buildings made by Prouvé are a composite of primary structure and the exterior. Prouvé applied aircraft manufacturing technology to building construction and pursued standardization that focuses on the design of exterior panels. In addition to its representational functions, Prouvé's exterior panels are structurally independent that allows the building exterior to be completely self-supporting. The panels from the <Minjunghwegwan> with the dimension of 1m x 4m are attached at the top and the bottom then to the top of the slab through steel angles. Without any support from the main building structure, the panels are structurally self-reliant themselves.

When the exterior wall system is separated from the structure and developed like an independent figure, the design of the building becomes similar to an airplane or automobile design and the construction is more likely to an assembly. He said, "I cannot agree with the 'open system' construction method, which is a design base of the elements and the materials that can be purchased and manufactured. This method is only applicable when the elements can imbue with diversity to the existing building. Therefore, we must follow "closed systems," a more faithful way that we also design new materials and elements according to the building. Prouvé's idea was based on the fact that machines are usually made by parts coming from one location. He believed that construction, especially constructing private houses, could be done with the "closed system," and that architects following the "closed system" would no longer depend on engineers for material design, and that close collaboration would ultimately bring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together. According to Prouvé, the best way is to be an engineer. However, is it realistic considering the fact that we constantly request outsourcing and subcontracting in real life? Prouvé's intention can be interpreted as the structural separation of outer wall system from the main structure; however, the "closed system" beyond that is chimerical in our society.

1.
Hayub Song, Wonjun Choi, *Surface Architecture*, 2009

실험적 외피

이정훈의 작업으로 돌아와서 보면, 헤르마 주차장, 카사 지오메트리카, 남해 주택에서 알루미늄 바의 변형 작업과 스테인리스 스틸과 같은 잡철의 이용, 그리고 블랙 스테인리스 스틸의 이용이 돋보이며 독보적이다. 남해 주택에서 알루미늄 바를 절개하여 둔각으로 접어서 스크린 월을 만들고 기존 주택을 업그레이드한 방법은 추후 그의 작업 방향의 모멘텀이 되었다. 알루미늄 바의 절개면은 거침없다. 커터 날의 흔적이 그대로 보이면 도장도 하지 않았다. 프루베보다는 시공 사실을 그대로 노출했던 브루탈리스트의 면모도 보인다. 사회적인 상황이 이유라기보다 압출 성형된 알루미늄 바의 가공에서 딱히 다른 방법이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그 사이에 비가 오고 눈이오고 거미줄이 쳐지고 먼지와 낙엽들이 깔지라고 이정훈 소장은 별다른 마감을 하지 않았다. 시골집에 이런 범상한 스크린이 있다는 게 의아하지만, 스크린이 있는 데크에서 고추나 무말랭이를 말리는 것을 상상해 보아도 재미있는 광경일 것 같다. 이쯤되면 이 스크린은 주택에 프라이버시를 주는 것 이상으로서 곧 주택의 얼굴이다. 사람의 얼굴도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통해 내면과 행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듯이, 건물의 얼굴도 바로 뒤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 궁금하게 하고 추측하게 만든다. “마치 무슨 일이 있을 것 처럼”의 가정법이 핵심이다. 알루미늄 바는 카사 지오메트리카에도 적용되었다. 일견 잉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주차장위의 공간에 놓인 알루미늄 바에는 LED가 내장되어 옆 임대공간의 행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무대 장치와 같은 틀로 쓰인다. 마침 고급 옷집이 임대하여 바겐세일을 할 수 있는 장소로도 사용될 수 있다.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해 한 벌은 말끔히 걸어놓고 그날을 준비하는 댄디한 모습이다.

투명과 굴절

투명과 더불어 금속 빛의 굴절, 반사와 불투명성의 탐닉은 현대를 살아가는 건축가에게 끊임없는 화두이다. 물론 이정훈에게는 그가 공부한 프랑스의 환경도 영향을 줬으리라. 프랑스는 금속과 유리의 건축이 먼저 적용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장 푸르베의 영향과 더불어 장 누벨의 건축도 자연의 빛에 대한 사고가 한 틀 자리하고 있다. 에펠탑도 금속과 투명한 공기가 어우러져 있는 것이 장관인 것처럼 말이다.

프랑스 대혁명의 민주적 정신이 사회의 투명성을 위한 것처럼 금속과 우리는 불투명한 돌과 벽돌을 대신하여 쓰였다. 현재는 너무 투명해져서 한병철 교수의 “투명사회”라는 시각적 투명함과 시스템에 의해 컨트롤되는 사회에 대한 불안감이 표출되기는 하였지만, 자연 앞에서 인간이 만드는 구조체가 한없이 투명하고 싶은 거도 참신함을 추구하는 건축예술의 한 방향이기도 하다. 이정훈의 작업에서는 유리보다는 금속이 돋보인다. 금속이 만드는 기하학적인 패턴 그리고 금속면을 통한 반사와 굴절이 더 중요하다. 그를 한국에 알린 헤르마 주차장은 플렉시글라스와 금속 그리고 개구부를 통해 한 화면을 보는 데도 다양한 투명과 반사, 굴절 등이 결합되어 있다. 금속면의 반사와 굴절은 마치 박물관에 있는 청동경을 보듯 정확하지 않지만 주변의 모습도 비춰 보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흐려진다. 사실 패널화 작업에서 금속 작업은 비교적 중성적인 재료의 선택이고 때로는 싸 보이는 효과 때문에 국내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았지만, 서구에서는 재료 값의 변화에 따라 21세기에 종종 사용되었다.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등에서 많이 쓰인 양상이 보인다.

굴절에 의한 자체면의 색과 그림자의 변화는 한 물질을 다르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또한 사람의 움직임을 통해 달라지면 전체적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1950년대의 후기 모던건축에서 거울과 금속면의 반사를 이용한 건축적 실험은 리차드 노이트라 등 몇몇 건축가들에게 의해 이루어졌으며, 거울을 통한 반사는 무대에서의 나르시스적인 모습의 강조와 더불어 상업적인 문화 확장 상태의 심리를 표현하는 면도 있었다. 항상 그렇지만 서양에서 근대 이후의 환영적인 모습은 세속화된 생활의 우아함이나 탐닉을 극대화하는 요소이다. 우리의 상황도 그리 다르지 않지만, 미국과 다른 점은 도시공간의 밀도에 따른 공간 확장이 허상이라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의 도시형 주택이 고밀도 지역에 프라이버시를 위해 口자형 중정을 가지듯 거울이나 반사면을 통하여 공간을 확장되게 보이는 것은 어찌보면 그 동기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공간에서 찰나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은 주어진 크기를 넘게 느끼게 한다. 건물의 댄디한 모습은 일반적으로 택하는 재료의 구성을 넘어서서 반사와 굴절, 그리고 야경을 통해 끝나지 않은 현장으로 남게 한다.

한계와 가능성

이정훈 소장은 댄디하다. 건축과 예술계에서는 군대용어인 아방가르드가 창의성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지만 댄디는 그리 쓰이지 않는 용어로 흔히들 멋쟁이를 지칭한다고 보면된다. 댄디는 자기 멋에 빠진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자기부정에서 시작한다. 남과는 다른 자기 개성을 자기부정에서 출발하여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다. 아방가르드는 뒤쳐진 시대를 이끌고 앞으로 전진하는 짐을 진 모습이라면, 댄디는 다양성 속에서 자기부정을 통해 개성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한다.

앞으로 이정훈의 금속에 대한 노하우는 더해질 것이다. 그러나 작업이 커지며 그의 재료 목록의 비중도 어떻게든 변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작업 범위를 볼 때 금속으로 실용적인 건물보다는 특이한 유형의 건물에 관심있는 클라이언트에 의해서일 경우가 많다. 다른 경우는 작년 렉스틸의 전시처럼 철강회사의 재료에 대한 실험일 수도 있다. 어쨌든 그가 구사할 수 있는 재료 목록은 아직 반도 못 푼 것 같다. 그는 오래전 건축학도로서 현실의 건축에 대한 불만의 대상을 정신세계와 재료 그리고 표상에서 찾았다. 지금 그것은 건축가로서 현실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좋은 집보다는 필요한 이가 찾는 집, 창의적인 것을 원하는 이가 찾는 집, 새로운 표상을 줄 수있는 집을 설계하는 일은 대다수를 만족시키는 건축 방식과는 다르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재료의 성질에 대한 재발견에서 시작하는 것은, 건축인들이 어렵듯이 알고 있는 재료의 본성을 표현하려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가 배운 재료의 본성은 엄밀히 보면 물리적 성질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재료에 담긴 관습적인 의미까지 의심해 보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래야만 재료와 그 적용에 대하여 재정의 하는 것이 가능하다. 금속도 이어붙이고 타공하는 것만이 아닌, 벽돌과 같이 쌓아보고 금속이 아닌 것처럼 여기면 실험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댄디한 건축가, 댄디한 건물이 익명적인 일상에 어떤 변화를 유도할까? 실험체로서의 이정훈의 작업이 원숙해지고 완성체로 되어 가면서 어떤 색을 지니게 될까? 초기의 프랭크 게리와 현재의 프랭크 게리가 다른 것처럼 그의 작업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겪을 것이지만, 그가 재료 목록을 늘려가면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한국건축에 하나의 방향을 만드는 것이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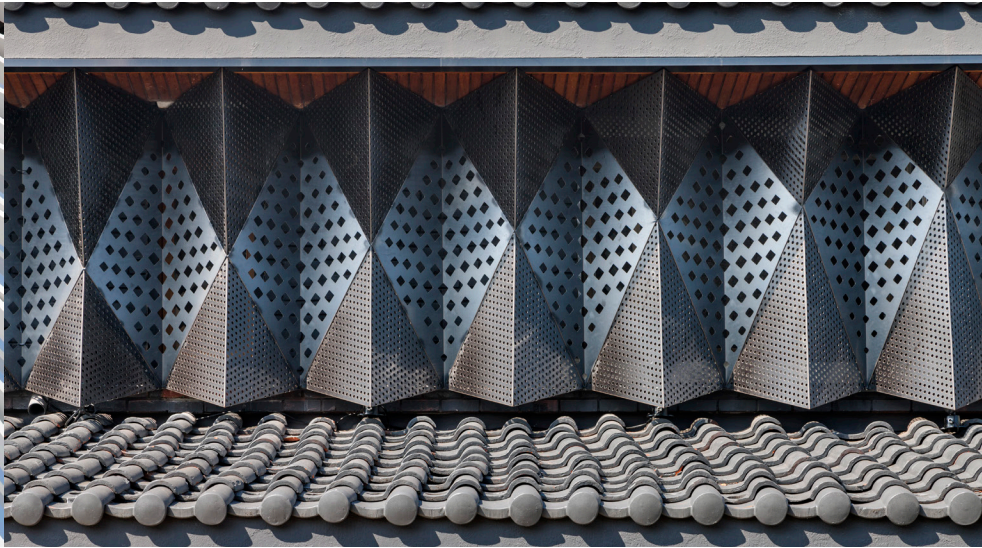


송하엽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건축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필리델피아에서 건축가로 활동하며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스튜디오 강사로, 드렉셀 대학에서 디자인 크리틱으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랜드마크; 도시를 경쟁하다』, 『전환기의 한국 건축과 4.3그룹』, 『표면으로 읽는 건축』이 있다.



Namhae Cheoma House, Namhae



Casa Geometrica, Seoul

Experimental Exterior

Back to Lee's works, Herma Parking Building, Casa Geometrica, and the South Sea House are unique and outstanding when it comes to featuring the transformation of aluminum bars, the use of blacksmiths such as stainless steel, and black stainless steel. Upgrading the existing house by using the method of cutting an aluminum bar and folding it in an obtuse angle to make the screen wall of the South Se House gave Lee the momentum of his future work. The incision of the aluminum bar is unobstructed. He did not even paint to cover up the traces of the cutter blade. I noticed Lee exposes the construction footprints more than Prouvé; more of a Brutalist than his role model. This didn't happen due to the social situation but rather happen by the fact that there was no other way, economically and technically, but to refine the extruded aluminum bars that way. In the meantime, as time goes by, Lee never painted the building even if it was raining, snowing, or covered with cobwebs, dust, and leaves. I wonder why there is such a splendid screen in a country house, but I imagine it would be a quite interesting sight to imagine drying red pepper or radish on the screen deck. By now, this screen is more of a face of the house than just providing privacy to the building. Just as face draws attention to the inside of a person, the look of the building also makes us wonder and ponder about what happens behind the scene. A subjunctive mindset "like something might happen" is key in this case. Aluminum bars have also been applied to Casa Geometrica. Although it seems to be a surplus at a glance, aluminum bars in the space above the parking structure have built-in LED lights and serve as a stage set that can be used for an event next to the retail stores. For example, the place could also be used by the retail store for a bargain sale. This is 'dandy' like how we suit up and prepare for the day of the future that may come.

Transparency and Refraction

In addition to transparency, the addiction of refraction, reflection, and opacity of metallic light is a constant matter for today's architects. Obviously, he is influenced by the French environment where he studied. France is a country where metal and glass are first applied. In addition to the influence of Jean Prouvé, the architecture of Jean Nouvel's idea natural light settles deep inside his philosophy. It is just like how the harmony of the metal and the transparent air makes the Eiffel Tower a spectacular sight.

Just as the spirit of the French Revolution wanted social transparency, the French used metal and glass instead of opaque stones and bricks. Although it is too transparent now, as Professor Han Byung Chul's "transparent society" discussing the anxiety about excessive transparency and the society controlled by the system, us human desperately want to be pellucid as possible in front of nature aliens with architects striving for the novelty of their design.

Metal stands out more than glass in Jung Hoon's work. The geometric patterns that the metal makes and the reflections and refractions through the metal face are more important. Herma Parking Building, which made him famous, is a combination of plexiglass, metal, and a variety of transparency, refraction, and refraction even when viewing a screen through one opening. The reflections and refractions of the metal surface from Herma Parking Structure are not as accurate as the bronzeware in the museum but reflects the surroundings and gradually blurred over time. Although metal-working has not been widely used domestically due to the relatively tawdry appearance neutral nature of the material, the use of metal on the panels is often used in the 21st-century western culture, especially in Netherland,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due to changes in the price of the material.

The change in color and shadows on its surface caused by refraction creates the effect of using different materials. It also creates a dreamy atmosphere with the change of the movement of people. Architectural experiments utilizing the reflection of mirrors and metal surfaces in the late modern architecture of the 1950s were carried out by several architects such as Richard Neutra. and the reflection from a mirror resembles narcissism on the stage as well as the mental state from the prosperity of pop culture. As always, however, the hallucinatory appearance of the post-modern era in the West is a factor that maximizes the elegance and indulgence of secularized life. Our situation is not so different from, but the difference from the United States is that space expansion according to the density of urban space is necessary. It seems that the motivation of our urban housing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at of the past; the use of a rectangular-shape structure for privacy in a high-density area and the use of a mirror for an extensive view to mitigate small space.

The very moment of experiencing this particular space will make you feel beyond the given size. The dandy appearance of this building is beyond the usual composition of the material, leaving it as an unfinished site through reflections, refractions, and night views gives the viewer an illusion of endless transformation like as it was constructed over and over again.

Limitation and Possibility

Lee Jung Hoon is Dandy. In architecture and art industry, the military term avant-garde refers someone who is creative, but Dandy is hardly used often referring someone charming. Dandy begins with self-denial rather than being narcissistic. Maintaining its character that is different from that of others starts from self-denial. If the avant-garde characterizes someone who carries this era's burden to move forward, Dandy works to visualize personality through self-denial among this diverse world. Lee Jung-hoon's know-how about metals will mature even more as time passes by. However, as the quantity of his work grows, the change of the material list on his office desk is inevitable. Moreover, this is most likely because it is quite often that clients are more interested in a particular type of the building rather be interested in the use of the metal in a building. In other cases, it may be due to an experiment on the material from a steel company like the exhibition of Luck Steel last year. Anyway, the list of materials he can use has not yet been revealed half of it. Since as an architecture student in college, his grievance towards the reality of architecture was especially found from the spiritual world, the materials, and the visual representation. Now he is positioning himself as an architect to solve the reality. Rather than just a designing a good house, designing a home for the needs, for someone who wants something creative, and for new definition is different from a design that satisfies the majority. Also, starting all these things from rediscovering of the material properties is different from trying to express the nature of the material as we the architects dimly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material, we have learned, is not strictly limited to physical properties, but needs to be questioned about the conventional meaning of the material. It is then possible to redefine the material and its application. It is necessary to text not only by attaching metal but also by piling up like we would do with a brick and looking as if it is not a metal.

Dandy architect, Dandy building, what sort of change would this building bring to our daily life? What color does Lee's work will display as it becomes more mature and complete? Although his work will undergo changes in some way, as early as Frank Gehry and the present Frank Gehry are different, as he increases his list of materials, his is destined to be part of a pioneering role and navigate us to a new direction in Korean architecture.

Hayub Song

He recieved his Ph. D. in Architecture at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der David Leatherbarrow. He practiced his profession as an architect in Philadelphia. Worded as an instructor at Upenn and as a design critic at Drexel University. He is also the author of the book, *Surface Architecture by David Leatherbarrow*.